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7호 【루계 제24785호】 주체104(2015)년 1월 7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선군단 제1제대 보병사단 직속구분대들의 비반충포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전선군단 제1제대 보병사단 직속구분대들의 비반충포사격경기대회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비반충포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인민무력부장인 륙군대장 현영철동지,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륙군상장 윤동현동지,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인 해군상장 김명식동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상장 최영호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인 오일정동지, 한광상동지, 리병철동지,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륙군대장 리영길동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륙군상장 서홍찬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인 륙군중장 김춘삼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인 륙군중장 윤영식동지가 맞이하였다.

포사격경기대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전군을 전선구분대들이 울리는 새해의 첫 포성으로 힘있게 고무하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단호히 징벌할수 있도록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기는 추첨으로 정한 부대별사격순차에 따라 화점목표와 땅크목표들을 사격한 다음 가장 우수한 단위들이 먼거리에 있는 화점목표를 더 사격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경기대회에는 조선인민군 제1군단, 제2군단, 제5군단안의 제1제대 보병사단 직속구분대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지휘관으로부터 경기진행형식과 방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경기를 시작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일시 고요했던 대기를 깨치며 포사격구령이 내렸다.

순간 멸적의 포신들이 시뻘건 불줄기를 내뿜었으며 하늘땅을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포탄들이 목표들을 명중하였다.

포신에서 뿜어져나가는 포탄 한발한발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통일의 열병광장에 모시려던 념원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따라 기어이 이루려는 총대전사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신념과 열망의 불줄기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의 미더운 전선의 전투원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치하하시였다.

경기대회 제1차, 제2차사격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단위들이 선발되여 1,500m 거리에 있는 화점목표에 대한 결승사격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제2군단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의 군인들이 불의의 정황속에서 1,500m 거리에 있는 화점목표를 격파하였는데 역시 근위부대가 다르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사격경기대회는 백번 싸우면 백번 승리하고야마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싸움본때, 싸움기질을 보여주었다.

사격경기대회에서는 제2군단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이 특등을 하였다.

군단별순위에서는 제2군단이, 사단별순위에서는 제2군단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이, 포별순위에서는 제5군단 제25보병사단 직속구분대가 1등을 쟁취하였다.

우승한 부대에 명포수상장이, 군인들에게는 명포수메달과 명포수휘장이 수여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특등을 쟁취한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에 명포수상장을, 군인들에게는 명포수메달과 명포수휘장을 직접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명포수상장과 명포수메달, 명포수휘장은 군인들이 조국과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고귀한 충정의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2015년 첫 명포수들은 일당백의 고향부대에서 나왔다고, 《근위부대자랑가》를 긍지높이 부르며 부대로 떳떳하게 돌아갈수 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제2군단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맹스럽게 잘 싸웠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 근위부대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그러자면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격정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제2군단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의 군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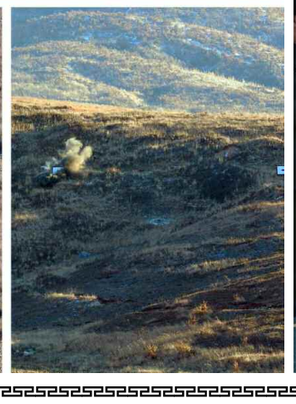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을 명사수, 명포수로 준비시키는것은 조국의 운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서 당에서는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발기하였다고, 이 운동은 군력강화의 전환적계기, 리정표로 된다고 하시면서 명사수, 명포수운동이 군인대중자신의 운동으로 되도록 군사정치사업을 지향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새해에도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훈련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을 소홀히 하면 총대에 녹이 쓸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칠성판우에 오르게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진정한 우리의 행복과 미래는 강력한 국방력에 의하여 담보되고 마련된다고, 따라서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오늘의 훈련은 곧 치렬한 전투와 같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과 훈련집행자들은 전투정치훈련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가지고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훈련을 강도높이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 전체 전선부대 장병들은 새해 정초부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을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모든 부대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의 남대문초소를 목숨바쳐 사수하고 우리 혁명을 억척같이 보위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올해의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가 6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광장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림으로써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만방에 빛내여갈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안고 모여온 수도의 각계층 군중들로 차고넘치였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당창건 70돐》,《조국해방 70돐》,《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라는 구호판들과 글발들,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최후승리》,《강성국가》 등의 구호들, 글발들과 조선로동당기, 공화국기가 광장주변건물들에 드리워져있었다.

김영남동지, 최룡해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곽범기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와 김용진, 리철만 내각부총리들,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당, 행정, 근로단체 및 기관, 대학, 공장, 기업소, 농장일군들, 영웅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수도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격정과 불타는 충정의 맹세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열정을 북돋아주며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부르는 전투적기치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난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선군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높이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였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그리움이 날을 따라 더욱 간절해지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이 보다 공고화되였으며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국방력이 튼튼히 다져졌다.

군민협동작전으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속에 도처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으며 우리 체육인들은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치였다.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정치사상진지를 공고히 하고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시안의 여러 단위들을 찾으시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대비약, 대혁신에로 불러일으키시였으며 곳곳에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들을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한량없는 사랑은 강성국가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고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며 백두산대국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보고자는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고 이렇게 강조하였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일편단심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실천으로 결사관철해나가야 할것이다.

수도의 당조직들은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키며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

선진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알곡과 남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축산, 양어기지와 온실,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와야 한다.

시안의 석탄, 전력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건설부문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며 모든 부문에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고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훌륭히 꾸려야 한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하고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보건분야에서 위생방역사업과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보람찬 투쟁에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바침으로써 누구나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한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감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휘날리며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토론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지배인 민일홍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수도의 전체 로동계급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 총진군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천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안아오겠다.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일터마다에서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세차게 일으켜 학생교복천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며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더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잘하여 모든 종업원들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키겠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공장로동자합숙을 잘 관리운영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며 공장구내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함으로써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 전국의 본보기공장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가겠다.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토론한 사동구역 리현남새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정영숙은 수도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농업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하겠다.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며 영농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잘하여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조직진행해나가겠다.

남새농사에 큰 힘을 넣어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떨구지 않고 생산보장하며 축산과 버섯재배를 통이 크게 벌려 농장원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버섯이 차례지도록 하겠다.

농업증산의 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모든 농장원들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화선식으로 해나감으로써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아올리겠다.

청년들을 대표하여 토론한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문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수도의 청년전위들의 가슴마다는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길 열의에 넘쳐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의 운명이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인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겠다.

모든 청년들을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김정일애국주의로 철저히 무장하고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견결한 반제계급의식, 고상한 도덕품성을 체질화한 선군청년전위들로 준비시키겠다.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를 중시하며 최후결전의 시각이 오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처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치는 청년영웅이 되도록 하겠다.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마다에서 청춘의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열심히 학습하여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 패권자가 되겠다.

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청년들이 당을 따라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도록 함으로써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토론한 김책공업종합대학 학부장 김호는 전체 지식인들의 심장마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새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갈 결의로 세차게 고동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교육자, 과학자들에게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과학연구와 교육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지식인들에게는 조선로동당의 품,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당의 교육중시, 과학중시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관철하겠다.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 첨단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겠다.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음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겠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대회가 끝난 다음 군중시위가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등의 구호들이 씌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힘찬 취주악에 맞추어 보무당당히 광장을 누벼나갔다.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행진해나가는 대오마다에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쳐갈 혁명적기상이 용솟음쳤다.

조선로동당기, 공화국기, 붉은기와 《당창건 70돐》,《조국해방 70돐》,《위대한 승리의 해》를 비롯한 손구호들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시위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불타는 맹세가 비껴있었다.

평양시군중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여갈 우리 인민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열의로 들끓는 평양시군중대회장 본사기자 김성남 찍음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열풍으로 전당이 끓는다

항일빨찌산식 군정학습이다

농업성 초급당위원회에서

농업성청사의 모든 방들은 숨죽은듯 조용했다. 드나드는 문소리 지어 발자욱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방들에서는 얼마나 뜨거운 불바람이 휘몰아치고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열풍이 온 성을 뜨겁게 달구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을 위한 농업성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항일빨찌산의 군정학습기풍을 그대로 재현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는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계승되고있는 우리 당의 훌륭한 전통이며 혁명화의 중요한 방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더 빨리, 더 깊이있게 학습하도록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전투목표와 작전을 잘 세우도록 하겠는가.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흥분속에 받아안던 시각부터 초급당비서 진금철동무의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였다.

그는 부비서들인 최태성, 김일찬동무들과 마주앉아 진지한 토의를 하였다. 모두의 생각은 일치하게 마당거우밀영, 백석탄밀영에로 달렸다.

일찌기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일제의 백만대군이 달려드는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여유있게 군정학습을 조직진행하신 백두산청년장군의 강인담대한 배짱, 학습을 최후승리를 위한 중요한 전투로 보신 그 선견지명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던것이다.

항일빨찌산의 군정학습기풍을 따라배우자, 투사들처럼 학습을 전투로 여기고 전투전의 전투를 벌리자.

이런 립장에서 신년사학습전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이 세워지고 분담안이 작성되였다.

학습의 첫 고리로 진행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해설강의를 위한 조직사업부터 류달랐다. 초급당위원회는 몸소 강의에 출연하시여 대원들의 정치리론 및 군사실무수준을 높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강의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였다.

뜻깊은 올해의 투쟁과업 특히 농업부문 과업을 해설하는데서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정책적안목과 시야를 넓혀주고 사업설계를 통이 크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것, 이것이 초급당위원회가 해설강의에 출연하는 성책임일군에게 특별히 강조한 문제였다.

과학농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앞장선 단위들의 경험, 올해 농업실천에 당면하게 받아들여야 할 주요과학농법들, 당에서 중시하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의 현실태와 전망 등을 폭넓게 반영하면서 품들여 준비한 해설강의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정무원들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학습하고 그 관철을 위한 일거리들을 종전과는 다른 높은 수준에서 찾아낼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에서 초급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것은 원문학습이다.

신년사를 받아안자마자 구성체계도를 만들어 부서들과 산하단위들의 사무실마다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무원들이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 내용을 빨리 파악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수 없는 초급당일군들이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등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원문에 기초하여 학습한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올해의 투쟁과업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뼈에 새기도록 하자는것이 초급당위원회의 목표였다.

이미 정무원들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자마자 원문그대로 통달한 선구자들이 나왔었다. 그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는 속에 일군들과 정무원들속에서 신년사원문통달열풍이 몰아쳤다. 나이가 문제로 되지 않았다. 새 세대 정무원들은 물론이고 나이가 많은 국, 처장들속에서도 원문통달자대렬이 늘어났다.

초급당위원회는 문답식학습경연, 학습토론 등을 통하여 신년사원문학습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러한 학습분위기는 통이 크고 구체적이며 실속있는 년간사업설계과정으로 이어졌다.

초급당위원회는 상을 비롯한 집행위원들과 초급당일군들이 한개 학습반씩 맡아 토론지도, 담화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무원들이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고 그 수행방도도 정확히 찾도록 하였다.

초급당비서가 자기 맡은 학습반의 학습토론을 지도하는 과정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신 물절약형농법을 농업실천에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방도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확정하도록 한 사실이 대표적실례이다.

학습반별로 토론과 담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자기 부서와 자기자신앞에 나서는 일거리를 확정하고 그 방도도 현실성있게 세워나가고있다.

이렇듯 성안에 끓어넘치는 신년사학습열의는 항일의 눈보라속에서 휘몰아치던 항일빨찌산의 군정학습열풍을 방불케 하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올해의 승리를 안아오자면 신년사학습부터 항일빨찌산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급당위원회는 새해벽두부터 모든 정무원들이 마당거우밀영과 백석탄밀영에 마음을 세우고 학습전투를 본때있게 벌리도록 하였습니다.》

초급당일군의 의미깊은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언제나 백두산에 세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을 항일빨찌산식 군정학습으로 전환시켜나가는 이들의 첫걸음이 얼마나 큰 승리를 약속하고있는가를 다시금 뜨겁게 느끼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향란

자자구구 뼈에 새기자

◇ 새해를 맞이한 온 나라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열풍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렬차와 뻐스, 지하전동차에서도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가고있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열기띤 모습을 볼수 있다.

우리와 만난 국토환경보호성의 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구절마다에 우리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내 나라, 내 조국을 하루빨리 세상에 보란듯이 우뚝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애국의지가 그대로 비껴있는 신년사를 학습할수록 올해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배심으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것은 그 한사람의 심정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뼈와 살로 새기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갈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올해 총공격전의 승리의 앞길을 밝힌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이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면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당의 혁명전통과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으며 새로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도 깊이 파악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에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올해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는 투쟁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이 빛발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나가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뼈에 새겨야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올해의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릴수 있으며 자랑찬 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떳떳하게 들어설수 있다.

◇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뼈에 새기고 새해 진군길에 신심드높이 떨쳐나서야 한다.

신년사학습을 통하여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의도를 깊이 새겨야 한다.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문답식학습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신년사학습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자기 단위,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산 학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년사학습에서도 총공격전의 기수이며 전위투사들인 일군들이 모범이 되여야 한다.

일군들은 자신들부터 신년사를 뼈와 살로 새기고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에 대한 학습지도를 심화시켜 온 나라에 신년사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이와 함께 신년사학습과정이 곧 매개 단위들에서 올해전투목표와 작전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뼈에 새기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올해의 총공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10월의 대축전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파고들수록 더 높은 목표가!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새해진군길에 나선 과학전선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열풍으로 세차게 끓고있다.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신년사학습열의가 대단하다.

새해 첫 전투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으로부터 시작한 이곳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신년사의 자자구구를 뼈에 새기며 올해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사회주의경제강국과 문명국건설의 지름길을 환히 밝힌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새겨볼수록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초급당비서 마중산동무의 가슴은 용암처럼 끓어번졌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 우리 과학자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였던가.

지난해 1월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동상을 정중히 모시여 과학자, 기술자들이 늘 대원수님들을 뵈옵고 마음속진정을 터놓으며 사업하고 생활하게 하자고 말씀하시며 과학자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꿈만 같은 지난해의 날과 달들이였다.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랴.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 사랑어린 물고기와 륜전기재들…

과학전선을 앞장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보니 그 나날들이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져 초급당일군의 가슴속에서는 보답의 일념만이 더욱 불타올랐다.

(과학자들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도록 당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자. 그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이 과학탐구에 전심할수 있게 연구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그쯘히 갖추고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자. …)

그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학습하면서 연구소의 모든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자랑찬 과학연구성과로써 뜻깊은 올해를 빛내여갈 열의로 심장을 불태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파고들수록 더 높은 목표가 세워졌다. 소장 정광룡동무는 나라의 정보과학기술부문에서 세계선진수준을 돌파하고 첨단정보기술제품들을 적극 연구개발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대담한 목표와 구상들을 무르익혔다.

리승진, 김학률동무를 비롯한 실장들은 구장세멘트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통이 큰 목표들을 세웠다.

머리휜 로과학자들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그 사랑, 그 은정에 보답하기 위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에 뚜렷한 생의 자욱을 새겨갈 드높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열풍은 청년과학자들속에서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청년과학자들은 자기들의 두뇌전과 실력전에 따라 세계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치렬한 과학기술경쟁에서의 승리가 결정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심장깊이 새기며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파고들수록 더 높은 목표가 세워진다.

이것이 바로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한 과학전선을 세차게 끓게 하는 신년사학습열풍이다.

본사기자 채인철

막장에서의 15분간

2.8직동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목마른 사람에게 어디 가면 물을 마실수 있다고 알려주는것처럼 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것, 듣고싶어하는것을 당정책에 립각하여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선전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열풍은 수천척지하막장에서도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의 신년사학습열의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우리는 막장에서의 15분간을 통해서도 절감하게 된다.

9갱 탄부들이 일하는 막장이다.

《휴식!—》

구령이 떨어지자 탄부들은 약속이나 한듯 한자리에 모여들었다. 그들의 말대로 신년사학습시간이 온것이다.

탄광초급당비서 리동철동무도 일손을 놓고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그는 모두에게 뜻있는 웃음을 지어보이며 한마디 던졌다.

《여기 오면서 보니 굴진3소대 친구들의 신년사학습열의가 대단하더군. 그들에게 짝지지 않겠지?》

신년사가 실린 신문을 꺼내며 하는 그의 말에 모두들 불이 당겼다.

초급일군들이 먼저 일어나 신년사의 체계와 내용을 해설하였다. 인상깊은것은 그다음이였다.

탄부들이 저저마다 일어나 신년사의 원문을 한문장한문장 엇바꾸어가며 대답하는것이였다.

신년사의 표현 하나, 문장 하나에 이르기까지 깊이 파고들며 직심스럽게 학습한것이 알리였다.

미처 통달하지 못한 탄부들은 초급당비서옆에 바싹 붙어앉아 그가 들고있는 신문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초급당비서는 아직은 강의가 계속되고있으니 점수는 며칠후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서 신년사의 체계와 내용을 귀에 쏙쏙 들어가게 다시금 상기시켜주었다. 탄부들의 눈빛은 더욱더 빛났다. 그 눈빛에 많은것이 비껴있었다.

이윽고 15분간이 흘렀다. 휴식시간이 끝났다. 아니 학습시간이 끝났다고 해야 더 옳을것이다.

《학습시간은 끝났지만 학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쪼개가며 학습에 더 큰 힘을 넣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뼈와 살로 만듭시다. 그래야 올해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초급당일군의 호소에 탄부들은 한결같이 호응해나섰다.

이어 전투가 시작되였다.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탄부들의 기상과 열의가 얼마나 높은가를 그날 넘쳐 수행한 전투실적이 다 말해주고있다.

탄부들은 그 비결이 15분간에 있다고 한다.

강정모, 송창학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도 초급당비서와 마찬가지로 작업의 쉴참들에 막장들에서 신년사학습을 실효성있게 이끌어나갔다.

그렇다.

막장에서의 15분간,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심장에 새기고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려는 직동의 탄부들의 비상한 의지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리정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깊이 학습하고있는 중구역당위원회 일군들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나가자

평양육아원, 애육원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육아원, 애육원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6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문, 해당 단위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설날에 오시겠다고 하신 아이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여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을 제일 그리워하는 원아들이 밝게 웃으며 즐겁게 설을 쇠는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아이들의 볼을 다정히 쓸어주시면서 새해에 복 많이 받고 몸도 마음도 튼튼히 무럭무럭 자라나라고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에게 이런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설을 함께 쇠니 힘들어도 보람있는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이애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하여 더 굳게 확신하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데 대해 언급하였다.

애육원 원아들의 설맞이공연도 보아주시고 친아버지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자식들마냥 춤과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에게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였으며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원아들을 훌륭히 키워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시며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같으신분은 세상에 없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새해의 첫아침 몸소 원아들을 찾아오시여 천만부모도 줄수 없는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새해의 진군길에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려퍼지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그것이 원아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는데서 책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머니다운 뜨거운 사랑과 함께 높은 교육자적자질을 갖추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관리를 위생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며 옳바른 도덕품성과 창발성, 자립성, 독자성을 키워주어 선군조선의 기둥감들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돌려주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응축되여있는 건물과 시설, 비품들을 알뜰히 애호관리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모든 원아들을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훌륭히 키움으로써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해 총공격전의 중요과업

올해는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우리가 올해에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며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자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투쟁과업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올해의 투쟁과업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올해 총공격전의 선차적인 과업이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하며 하나의 사상의지로 뭉친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함께 해나갈 때 이 세상에 두려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 이것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 사회주의에 대한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부강조국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의 유산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시대사상의 조국, 당과 혁명대오가 일심단결된 불패의 나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식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다.

세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높이 떨쳐온 불패의 정치사상적위력으로 올해의 총진군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자는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할데 대하여,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전체 군대와 인민을 견결한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할 때 올해의 총공격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혁명무력건설과 국방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는것은 올해 총공격전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다.

군사를 중시하고 총대를 강화하는것은 단순히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전술적문제가 아니다.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 변함없이 견지해야 할 전략적로선이 바로 우리 당의 총대중시, 군사중시로선이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침략전쟁의 위험은 절대로 가셔질수 없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비렬한 《인권》모략소동에 매여달리는것도 성차지 않아 최근에는 우리를 그 무슨 《싸이버테로》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반공화국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올해의 총진군 역시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며 군력을 강화해나가는 길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최후승리의 근본담보가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는 올해에 혁명무력건설과 국방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과업들이 다 밝혀져있다.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전민항전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국방공업부문에서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여 우리 식의 위력한 최첨단무장장비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욱 완성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신년사에 담겨져있는 중요한 요구이다.

선군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올해의 총공격전도 무적필승의 군력으로 확고히 담보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의지는 억척불변이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올해 총공격전의 중요한 과업이다.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심화되고있다. 지난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농업과 수산, 화학, 석탄전선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고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 우리가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신년사에는 과학전선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높은 자주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뭉개버리며 모든 경제부문들이 빨리 전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되여있다. 이와 함께 농산과 축산, 수산, 경공업,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중요공업부문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며 교육과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들도 명백히 밝혀져있다. 신년사에 제시된 이러한 과업들이 철저히 관철될 때 우리는 올해에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올해 총진군의 홰불이며 승리의 표대이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신년사에 제시된 투쟁과업을 확고한 지침으로 틀어쥐고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리강철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 드높은 열의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나래친 통나무집중수송전

현장지휘부와 각 단위 정치일군,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청천강용사들의 충정의 맹세가 수백리 청천강전역을 진감하고있다.

지난해 당앞에 결의다진대로 계단식발전소건설 총공사량의 85%를 빛나게 넘쳐 수행한 현장지휘부와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뜻깊은 올해 발전소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피끓는 가슴마다에 만장약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갈 그들의 결사관철의 신념과 의지가 현장지휘부적으로 벌어진 새해의 첫 전투, 왕복 수백리의 통나무집중수송전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지난 2일 아침 현장지휘부 앞마당에는 수백리전역에 전개된 공사장마다에서 전투적인 글발과 표어들을 달고 붉은기들을 휘날리며 달려온 10여대의 화물자동차들이 단김을 확확 뿜으며 정렬했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구조물공사에 필요한 통나무를 예견성있게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부적인 첫 전투로 택한 통나무집중수송길이였다. 자동차마다에는 백수십리 떨어진 산판에서 새해를 맞는 돌격대원들을 위해 각 단위에서 밤새워 만든 별식들과 각종 후방물자, 생활필수품들이 실려있었다.

《동무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우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중요건설대상의 첫자리에 또다시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오늘의 전투를 단순한 통나무수송전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원수님께 발전소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남먼저 들어설 우리 청천강용사들의 충정의 열도를 과시하는 올해 총공격전의 첫 출발선입니다.》

현장지휘부 정치일군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그대로 출발구령이 되였다. 맵짠 추위속에서 왕복 수백리의 험한 산길 특히 경사가 급하고 구배가 심하기로 소문난 눈덮인 수십리 초막령도 넘어야 하는 어려운 수송길로 각 단위 정치일군들이 첨승한 통나무집중수송대가 경적소리 높이 들어섰다.

선두에 선 방송선전차에서 힘차게 울려퍼지는 《발걸음》,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장엄한 노래선률은 백두밀림에 높이 울리던 항일유격대의 나팔소리마냥 수송대오에 당정책결사옹위의 신념을 만장약해주었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를 비롯한 구호들과 글발들, 표어들을 달고 휜눈덮인 산판길을 내달리는 집중수송대오, 그것은 그대로 뜻깊은 올해 발전소완공의 자랑찬 실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갈 충정의 맹세를 만장약하고 만난시련을 뚫고나갈 청천강용사들의 불굴의 군상을 련상케 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청천강전역에서 오직 승리와 기적만을 창조할 수송대오의 드높은 격정은 혁명의 천리길로정도앞에서 진행된 결의모임을 계기로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자기 단위가 맡은 발전소건설을 태양절전으로 빛나게 결속할 결의를 토로하는 정치일군들도 있었고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할것을 결의하는 일군들도 있었다. 너성돌격대원시인으로 성장한 평양시려단 전순영동무의 자작시는 수송대오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비상한 각오를 더욱 굳게 심어주었다.

통나무산지에 도착한 정치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나팔수가 되여 돌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 불을 지피였다.

평양시,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남포시려단을 비롯한 각 단위 정치일군들은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당보를 돌격대원들에게 안겨주며 올해의 투쟁구호와 전투적과업, 방도를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현장지휘부 정치일군도 마련해가지고온 후방물자를 안고 벽동군대대, 동신군대대 전투원들의 숙소를 련이어 찾았다.

바람세찬 산지초소를 지켜가는 돌격대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며 올해신년사에서 제시된대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정치일군들, 병실은 물론 취사장에 들어가 음식맛도 보아주며 설날을 맞는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 정치일군들의 친어머니다운 진정은 통나무산지에 새해의 환희와 더불어 새로운 위훈창조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온 산판이 순식간에 불도가니로 화한 속에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한마음한뜻이 되여 이미 채벌한 통나무들에 대한 상차전투를 순식간에 끝내였다.

날이 어두워 귀로에 오른 수송대오앞에는 그들의 의지를 시험하듯 더 큰 난관이 조성되였다. 두꺼운 얼음층으로 뒤덮인 초막령의 산길, 쇠사슬을 찬 차바퀴도 지치는 수십리 험한 령길이 그들의 전진을 걸음마다 막아나섰다. 차에서 내린 현장지휘부와 각 단위 정치일군들이 전지불을 앞장서 비쳐가며 한치한치 수송길을 안내해나갔다. 적재함마다에 통나무를 만적재한 자동차행렬은 정확한 렬을 지어 눈길을 오르고내리며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험한 령길들을 성과적으로 강행돌파한 수송대오는 그 밤으로 련이어 각 공사장들로 운행길을 이어나갔다.

새해의 첫 통나무집중수송전투,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할 충정의 각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청천강용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다시한번 뚜렷이 과시하였으며 발전소완공을 위한 마지막총공격전에 진입한 전체 돌격대원들을 새로운 기적창조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평양시려단에서

완공의 날을 앞당길 일념안고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발전소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자랑안고 새해전투에 진입한 평양시려단 돌격대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들앞에는 전구간의 언제수문설치공사를 하루빨리 다그쳐 전기생산을 위한 물을 잡으며 완성된 발전기실하부구조물공사에 토대하여 발전기가 들어오는 차제로 조립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과제가 나서고있다. 또한 이미 작전한대로 발전기실, 운영건물, 종업원살림집들의 지붕공사를 끝내고 나무심기, 잔디입히기를 비롯하여 발전소주변을 공원화, 수림화하는 마감과제들도 빠른 시일안에 수행하여야 한다.

려단의 일군들은 올해에 해야 할 공사목표들을 태양절전으로 전부 끝내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현실성있게 세우는 한편 각 대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가 그대로 올해의 높은 공사실적으로 이어지도록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고있다.

여러 공사와 함께 당면하여 언제의 강바닥정리굴착에 총력량을 집중하고있다.

강추위속에서 꽁꽁 언 땅의 굴착공사를 진행하는것이 천연암반굴착보다 곱절이나 어렵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뜨거운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떨쳐나선 만경대구역, 대동강구역, 선교구역, 동대원구역, 형제산구역대대를 비롯한 각 대대 전투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새해에 들어와 2일동안에만도 1 500㎥의 굴착실적이 이룩되였다.

이들의 투쟁기세에 발맞추어 현장지휘부에서 굴착설비들을 보강해줌으로써 실적은 더욱 높아가고있다.

발전기실지붕공사에 떨쳐나선 락랑구역대대 전투원들은 천정공사의 돌파구를 열어 보온재깔기가 하루빨리 다그쳐지도록 할 열의밑에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언제수문설치에 떨쳐나선 전투원들도 수문부분품들을 지상확대식으로 조립하여 공사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첫 전투에서부터 드센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언제다리보설치공사에서 최고기록 창조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태양같이 환하신 모습을 뵈옵고 필승의 혁명신념과 천백배의 용기를 더욱 가다듬은 황해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새 열정, 새 목표로 충만된 가슴들을 쭉 펴고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24개에 달하는 다리보의 운반 및 설치과제 성과적으로 수행!

이것은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새해 첫 전투에 떨쳐나 불과 3일동안에 이룩한 자랑찬 성과이다.

하루를 보통의 열흘, 백날맞잡이로 질풍같이 내달려 단숨에 창조한 이 눈부신 위훈의 밑뿌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것인가.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따라 지휘관도 돌격대원들도 산악같이 일떠섰다.

시작부터 치렬한 돌격전의 련속이였다.

세차게 휘몰아치는 칼바람이 온몸을 파고들고 맵짠 추위와 불리한 도로상태로 하여 륜전기재들의 가동이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다. 특히 개당 근 20t에 달하는 부재들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상차 및 운반하여 언제정점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다 다른 단위들과는 달리 언제수문권양기가동을 위한 다리보와 자동차다리보를 100여개나 설치해야 하는 아름찬 과제였다.

《동무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은 우리 혁명가들에게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원쑤들에게는 돌풍이 되여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라고 가르치시였소. 우리모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가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새해 첫 건설공사의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제낍시다.》

려단장 김석철동무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돌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살아 쿵쿵 맥박치도록 불같이 호소하며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갔다.

지휘관들의 뒤를 따라 돌격대원들이 한몸그대로 육탄이 되여 지치는 자동차들을 어깨로 떠밀었으며 려단운수중대와 현장지휘부 운수소대 운전사들이 만적재한 차들을 억척같이 몰아갔다.

기중기에 의한 단번설치방법으로 종전보다 조립시간을 근절반으로 단축, 하루평균 8개의 다리보 설치!

좌안비일류부언제의 성토공사에 떨쳐나선 각 대대 전투원들도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매일 과제를 두몫, 세몫씩 해제끼였다. 세차게 휘몰아치는 칼바람에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비일류부언제의 성토구간을 한치한치 다져나가는 이들의 모습은 진격의 나팔소리 울리며 진군해가던 항일혁명선렬들의 군상그대로였다.

하여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난시련을 과감히 뚫고 련 3일동안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치렬한 공격전을 벌려 며칠내로 언제다리보설치공사를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제끼였다.

그렇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갈 때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오늘도 황해남도려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희천5호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내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완공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드릴 불타는 열의에 넘쳐 전투장마다에서 충정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우리도 대건설전투의 참전자

성, 중앙기관 일군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여러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새해정초부터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성심성의로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은하지도국의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 한마음안고 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에 앞장섰다. 새해 첫아침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접하고 지도국의 책임일군들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박영호, 김미옥, 김형익동무를 비롯한 책임일군들은 국의 여러 부서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해설해주고 청천강용사들의 투쟁위훈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그들의 지원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즉시 자신들이 앞장서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를 싣고 한달음에 공사장으로 달려왔다.

이들은 발전소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긍지속에 새해를 맞는 돌격대원들을 뜨겁게 축하해주고 성의껏 마련한 많은 량의 지원물자들을 넘겨주면서 완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줄것을 절절히 부탁하였다.

상업성과 체육신문사의 책임일군들도 새해 첫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접한 즉시 많은 량의 각종 후방물자들을 준비하여가지고 건설장으로 달려와 건설자들의 로력적성과를 축하해주고 새해의 보람찬 진군길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쳐줄것을 뜨겁게 당부하였다.

경공업성과 산하기업소일군들은 솜옷을 비롯한 각종 지원물자를 안고 건설장을 찾았으며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책임일군들은 건설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많은 량의 장갑, 세면도구를 비롯한 생활필수품과 각종 후방물자들을 안고 설을 맞고있는 희천12호발전소건설장을 찾아 돌격대원들의 성과를 축하해주면서 새로운 조선속도, 제2의 희천정신창조투쟁에로 적극 추동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앞장에서 꽃피울 일념안고 새해 정초부터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찾아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뜨거운 진정에 고무된 각 단위 전투원들은 발전소건설을 기어이 앞당겨 끝내고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 열의밑에 첫 전투부터 산악같이 떨쳐나 련일 자랑찬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 단상 ‖

동물사에 비낀 청천강반의 래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장지휘부구내에 새로 일떠선 동물사앞에 서있다.

흰눈덮인 주변환경과 대조를 이루며 마치 중앙동물원의 어느 한 동물사를 옮겨온듯 아담하고 규모있게 건설된 동물사이다. 칠면조와 꿩, 비둘기와 토끼 등 여러 동물들이 함께 살고있는 이곳에는 우아한 모양의 비둘기장과 아늑한 굴식토끼우리가 있는가 하면 동물들의 생활습관에 맞는 각양각색의 덕대들과 인공적으로 형성한 바위들과 나무들도 있다.

각 단위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그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며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한다.

《우리가 짓게 될 발전소종업원살림집의 토끼우리도 저렇게 형성해야겠구만.》

《우리 발전소주변에도 저렇게 환경을 조성하면 참 좋겠구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이 동물사건설을 발기한 현장지휘부의 정치일군이 하였다는 이야기가 되새겨졌다.

새해에 발전소건설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각 발전소들의 주변환경을 공원화, 수림화하는것이다. 어느 단위에서나 나무심기를 비롯한 방대한 주변정리과제가 나서고있는데 그 준비사업은 지금부터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부터가 청천강의 래일을 마음속에 안고 그 시범을 하나하나 실속있게 마련해나가자.

이렇게 되여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지난해 12월말 시작된 동물사건설이였다.

책임일군들부터가 앞장서 건축형식을 새롭게 하는데 머리를 썼고 하나의 장식물도 표본이 될수 있게 완성하도록 남모르는 수고를 바치였다. 박효명분과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3일간의 전투를 벌려 건설을 끝내였고 일군들 너도나도 떨쳐나 마련한 동물들이 훌륭히 꾸려진 이곳에 새 보금자리를 폈다.

비록 크지 않은 창조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청천강을 전기강, 보배강으로 전변시켜나가는 이곳 청천강용사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엿볼수 있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는 대자연과의 투쟁속에서도 김정일애국주의를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인민의 웃음소리 높이 울릴 청천강반의 래일을 앞당겨갈 강렬한 지향을.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사회주의경쟁 호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궐기모임들이 6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궐기모임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된 궐기모임에서는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직맹위원장 박일남,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초급직맹위원장 김경향, 평양시건설관리국 상하수도건설사업소 초급직맹위원장 김영진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올해의 투쟁목표와 그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천만군민을 위대한 새 승리에로 부르는 전투적기치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모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직업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선군혁명조직으로 튼튼히 꾸릴것이라고 말하였다.

각급 직맹조직들과 일군들이 동맹원들속에서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모두를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선군혁명투사들로 준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국방공업발전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 생산보장하며 원군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산부문에서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며 경공업부문에서 질좋은 소비품과 학용품, 어린이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차례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력과 석탄,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과 철도운수부문, 건설부문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생산정상화를 위한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더욱 고조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직업동맹일군들이 사회주의경쟁,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여 모든 동맹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킬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릴것을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열렬히 호소하였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궐기모임

재령군에서 진행된 궐기모임에서는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황해북도농근맹위원회 위원장 리창용,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리혜숙,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 박명심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끝없는 환희와 원대한 포부를 안고 뜻깊은 올해를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여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사회주의농촌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온 나라 협동벌마다에 그대로 맥박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근맹원들속에서 5대교양을 강화하여 농업전선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올해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불리한 자연조건에서도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며 전국도처에 마련해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하면서 배우고 또 배워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군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들고 농업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선전과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자랑찬 알곡증산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릴것을 전국의 농장들에 열렬히 호소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김 정 은

평화적환경의 마련은 현 북남관계의 요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올해신년사는 북남관계와 우리 민족의 앞길에 드리웠던 검은구름을 밀어내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승리의 기치이다. 신년사에는 올해 우리 겨레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원칙과 과업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지금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강령적지침으로 새겨안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기어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일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다. 우리 겨레는 너무도 오랜 세월 분렬의 비극과 함께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왔다. 더우기 외세의 강요에 의해 지난 세기 50년대에 전쟁의 참화를 겪은 조선민족은 이제는 내외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인하여 핵전쟁의 재난까지 당할수 있는 엄혹한 환경에 처해있다. 조선반도에서의 정전은 결코 평화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고있을뿐이지 사실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 조선반도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으로 하여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여왔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언제 어느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수십년세월 항시적인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평화에 대한 우리 겨레의 지향과 념원은 날로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의 개선을 위한 가장 절박한 요구이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은 상대방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위협이며 침략기도의 발로이다.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침략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있는 미국은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년례행사처럼 끊임없이 벌려놓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엄중히 위협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항시적으로 격화시키고있다. 지난해 미국이 《북핵위협》과 《도발대비》의 간판밑에 최신공격수단과 장비를 계속 끌어들여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전쟁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림으로써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파괴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최대로 격화되였으며 우리 민족의 운명이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북남관계의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문제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핵전쟁도발을 꿈꾸는 미국에 계속 추종한다면 조선반도의 평화는 언제 가도 이룩될수 없고 북남관계도 외세의 북침핵전쟁음모의 희생물이 될수밖에 없다.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이 계속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지난해의 력사적교훈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지난해에 우리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대화와 협력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북남관계가 날을 따라 악화의 길로 줄달음친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전쟁연습책동때문이다. 내외호전세력이 매일과 같이 광란적으로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 《맥스 썬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심히 흐려놓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회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조선과의 동맹을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의 초석으로, 《핵심축》으로 광고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남조선을 저들의 전략적리익실현과 북침핵전쟁도발의 돌격대로 써먹기 위한 미사려구에 불과할따름이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호전적인 대조선전략에 추종하는것은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만일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집이 터지는 경우 그것은 불피코 핵전쟁으로 번져질것이며 그 최대의 피해자는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다. 그 재난은 결코 지난 조선전쟁때와 대비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핵전쟁연습이 아무것도 가져다줄것이 없으며 종당에는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립장이며 의지이다. 하기에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안들을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내외호전세력의 핵전쟁위협이 날로 엄중해지고있는 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지 않고있는것은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고 평화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인내성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우리는 지난날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북남관계개선과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다할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치 않을것이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며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것이다.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는 조국해방 70돐,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속에 품고 북남관계개선을 운운할 때는 지나갔다. 남조선당국은 실천행동으로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명백한 립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하고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자면 뭐니뭐니 해도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비단 북과 남의 당국자들에게만 해당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 조선민족에게 부과된 중대한 력사적과제이다. 이 땅에서 대결과 전쟁의 위험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민족사적투쟁에 북과 남이 따로 있을수 없고 개별적인 계급과 계층이 따로 있을수 없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반드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심 철 영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총련일군들의 새해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새해신년사와 새해축전을 높이 받들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련일군들의 새해모임이 1일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과 소장, 중앙단체, 사업체책임일군들, 간또지방의 총련본부, 지부위원장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주체104(2015)년을 맞으며 하신 신년사를 청취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보내주신 새해축전이 랑독되였다.

참가자들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담보하는 강령적지침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새해신년사와 새해축전을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신년사와 새해축전을 높이 받들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조국인민들과 발걸음을 같이하며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성명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것을 다짐하여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가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새해신년사를 커다란 흥분속에 받아안은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와 전체 성원들은 그 관철을 위해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의지에 넘쳐있다고 밝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념원과 의지를 담아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70년세월이 흐르도록 외세에 의한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지 못하고 온 민족이 불행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다.

지난해에 공화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지만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념원과 력사와 시대의 요구에 호응하여 더이상 미국에 추종하지 말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길로 나와야 한다.

우리 조국을 분렬시킨것도 미국이고 70년이 되도록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여온것도 미국이며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제에 추종하여 얻을것이란 민족의 불행과 고통, 핵참화뿐이다.

남조선당국은 평화통일에 대한 의사가 진정으로 있다면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제도통일》망상을 버리고 북과 남이 합의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올해 북과 남의 인민들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꺾을수 없는 겨레의 통일의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우리 겨레모두의 가슴가슴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과 애국의지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온 겨레가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나갈 맹세를 다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의 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수도 없고 막을수도 없습니다.》

지난해에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은 의연히 악랄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며 용기백배하여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와 민주로총, 《통일광장》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광범한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성명, 담화, 론평, 호소문들을 련이어 발표하고 각종 형식의 시위와 집회투쟁을 벌리면서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진보민주세력들의 투쟁현장들에서는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시고 북과 남, 해외의 각계 단체들사이의 련대련합으로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가자는 열렬한 호소들이 울려나왔다.

6.15공동선언발표 14돐을 맞으며 남조선에서는 북남수뇌상봉연고자들과 정계, 사회단체들이 당국의 방해책동속에서도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을 조직진행하면서 통일열기를 고조시키였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를 위해 6.15정신을 잇는 기념행사를 반드시 추진할것이라고 선언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범민련 남측본부, 우리 겨레 하나되기운동본부, 민주로총, 새정치민주련합과 함께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을 진행하였다. 행사에서는 기념대회, 통일음악회 《응답하라 6.15》, 림진각에로의 걷기행사, 공동호소문 발표 및 결의문채택모임 등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특색있게 진행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10.4선언발표 7돐을 계기로 기념토론회, 기념집회, 사진전시회, 학술토론회 등 여러가지 행사들을 조직하면서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는 통일애국의지를 다시금 과시하였다.

남조선의 각계 통일인사들과 단체들은 지난해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북남관계개선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실천을 요구하는 구호판들을 들고 당국의 대결정책을 규탄하는 시위투쟁을 벌리면서 새해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벌려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단결은 승리의 담보이기에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당국의 반통일적인 탄압에 단결의 힘으로 맞서면서 서로 련대련합하여 조국통일운동을 굴함없이 벌려나갔다.

지난해 남조선에서만이 아니라 미국, 카나다,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도 해외동포조직들과 통일운동단체들의 주도밑에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졌다.

범민련 유럽지역본부는 범민련결성 24돐을 맞으며 발표한 호소문에서 굴함없이 싸우고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조국해방 70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5돐, 6.15공동선언발표 15돐, 범민련결성 25돐이 되는 뜻깊은 2015년에 반통일세력의 대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적극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지난해 남조선과 해외에서 힘차게 벌어진 이러한 투쟁들은 반통일세력을 궁지에 몰아넣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투쟁기운을 더욱 고조시키였다.

그 어떤 반통일광풍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겨레의 힘찬 전진운동을 가로막을수 없다. 뜻깊은 올해에 우리 겨레는 절세위인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로 반통일광풍을 과감히 물리치며 자주통일을 위한 대진군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우리의 통일헌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남조선학자가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사람일보》가 얼마전 《우리의 통일헌장은 6.15, 10.4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곽동기가 쓴 글을 실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수뇌분들은 평양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시였다.

6.15공동선언은 1972년에 합의한 조국통일의 원칙에 맞게 1항에서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2항에서는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과 관련하여서도 선언은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협력을 나누어 접근하였으며 협력의 목표를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는데 두어 통일에 복무하는 협력을 할것을 합의하였다.

6.15공동선언은 그야말로 분렬의 력사를 종식시키고 조국통일의 파도를 일렁이게 하는 민족사적쾌거였다.

2007년 10월 4일 또 한차례의 남북수뇌상봉이 마련되고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발표되였다.

10.4선언은 1항에서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고 합의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군사적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합의사항들이 도출되였다.

10.4선언에는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문화부문의 협력사업을 모두 합의하여놓았다. 각 부문별 협력원칙과 방법은 남북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들이다.

결론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루려면 7.4남북공동성명에서 채택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면 된다.

【조선중앙통신】

온 겨레의 심장을 끓게 하는 애국애족의 호소

신심과 의지가 용솟음친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의 호소는 우리들의 심장을 환희와 격동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얼마나 가슴벅차고 격정에 목메이게 하는가.

조국해방의 환희가 민족분렬의 쓰라린 비분으로 바뀐 때로부터 어느덧 70년이 되였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10년이 일곱번이나 흘러 세대는 바뀌고 시대는 달라졌지만 분렬의 비극은 나날이 겨레의 가슴을 아프게도 허비였다. 생리별당한 부모형제들의 처절한 피눈물과 통곡이 그 70년의 세월속에 얼마나 진하게 슴배여있고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귀중한 피와 생명을 애국의 제단에 아낌없이 바치며 통일, 통일을 웨쳤던가. 정말 생각할수록 누구에게나 다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통일은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요구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그리도 절절히 호소하신것이 아니겠는가. 절세위인의 심장의 호소는 겨레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을 펼쳐나갈 대범하고 통이 큰 결단의 발현이다.

절세위인의 애국의 의지에 떠받들려 거창하게 뻗어가는 자주통일의 대통로가 눈앞에 보이는듯 하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얼싸안고 통일만세를 부를 날은 결코 멀지 않았다는것이 신년사를 받아안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신심이고 락관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책임진 일군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삼천리강토에 온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강하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는데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 김 영 철

자주통일은 우리 민족끼리의 위력으로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용용히 높뛰는 애국의 맥동으로 온 겨레의 심장들을 울려주고있다.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새겨갈수록 조국통일의 절박성, 민족성원으로서의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느끼게 된다. 그야말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야 하겠다는 열정과 투지가 이 가슴에 끓어넘친다. 조국통일이 아직까지 이룩되지 못하고있는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북과 남이 하나로 합쳐지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이 반통일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해왔기때문이다.

하기에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미국의 지배와 간섭책동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력사의 철리를 다시한번 새겨안게 되는 우리 민족이다.

민족의 운명은 민족자체의 힘으로 개척해야 하며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민족끼리리념을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하여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의 위력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제낌으로써 세계에 조선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우리들은 올해에 우리 당의 보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자기들의 땀과 열정을 깡그리 바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섬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애국의 한마음으로 높이 받들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옥류아동병원 과장 조 인 수

대결정책을 전환할 때가 되였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일일천추로 조국통일을 고대하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절세위인의 신년사를 통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뚜렷한 과업을 받아안은 온 겨레가 올해 북남관계에서 일어날 력사적사변들을 그려보며 환희와 기쁨, 희망과 락관에 넘쳐있다. 금시라도 북과 남의 형제들이 얼싸안고 기쁨을 금치 못하는 격정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오고 온 겨레가 어깨겯고 손잡고 웨치는 통일만세의 함성이 들려오는듯싶다.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루 헤아릴수 없는 분렬의 고통과 불행을 겪으며 꿈에서도 통일을 소원한 우리 겨레이다. 대결과 불신의 나날과 지속되는 전쟁위험속에서 평화와 평화통일의 귀중함은 또 얼마나 절실히 깨달았던가.

조국해방 70돐을 맞는 올해야말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야 할 때이다.

동족대결이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군사적충돌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은 지나온 현실을 통해 뚜렷이 립증된 사실이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에 백해무익한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만이 민족이 살 길이다.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바로 우리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 누가 선사할수도 가져다줄수도 없는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실현해야 한다. 남녘의 농민들과 함께 통일된 조국땅에서 애국의 땀방울을 한껏 흘려보고 싶은것이 우리들의 심정이다.

우리는 지난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생산목표를 점령하는것으로써 통일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북청군 라하과수농장 작업반장 박 동 수

조국통일의 주인은 전체 조선민족

새해 2015년과 더불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온 겨레는 새로운 신심과 높뛰는 격정을 안고 통일대진군에 떨쳐나섰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자주의 정신과 기상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단호히 뒤집어엎고 조국의 해방을 누리에 장엄히 선언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참으로 뜻깊은 해이다.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세차게 분출하고있다.

대결의 수렁에서 헤매이는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고 민족의 운명, 통일의 전도와 관련된 사활적문제로 나서고있다.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일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시대와 력사의 이 물음앞에 명백한 해답을 주는 절세위인의 고귀한 명언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

자주통일위업을 추동하고 완성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이야말로 해내외의 온 겨레가 언제나 좌우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삶과 투쟁의 지침이다.

조국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내외반통일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물리치고 전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여야 하는 위업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렬시키고 통일위업실현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원흉이다. 미국은 남조선을 손아귀에 철저히 틀어쥐고 북과 남의 대결을 조장하면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공갈과 무분별한 핵전쟁책동을 일삼으면서 전체 조선민족을 노예화하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 우리 민족의 분렬과 대결을 꾀하며 그것을 통해 침략적인 대조선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외세의 간계에 놀아난다면 북과 남은 언제 가도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외세의 악랄한 반통일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위업을 힘차게 추동해나가자면 북과 남, 해외의 모든 계급, 계층이 조국통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사상과 제도, 리념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여넘어 통일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오로지 민족자체의 힘, 민족주체의 노력으로 이룩해야 하는 자주위업이 바로 조국통일이다.

우리 민족은 남달리 자주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슬기로운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장구한 기간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민족적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쳤으며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자체의 힘으로 쳐물리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여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한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불굴의 투지와 완강한 자주정신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대결전쟁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왔으며 새천년대와 더불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6.15통일시대를 안아왔다. 력사의 모진 시련과 광풍도 조선민족의 자주정신과 억센 통일의지를 말살하지 못하였다.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속에서 높이 발휘된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기상, 억척의 힘을 믿고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모든 민족성원들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바로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도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성스러운 통일애국위업에 거족적으로 궐기해나서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성스러운 애국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를 심장깊이 새겨야 한다. 자기 힘, 자기의 지혜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안겨주고 민족운명개척에서 거대한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는 우리 민족끼리리념이 시대의 앞길을 밝히고있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 통일위업승리의 비결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더욱 과감히 투쟁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반드시 열어놓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은 정 철

정신을 차리고 처신을 바로해야 한다

유럽이 미국의 인권유린만행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얼마전에는 영국의 BBC방송과 신문 《텔레그라프》, 《인디펜던트》 등 언론들이 구체적인 자료까지 들어가며 이와 관련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이전 영국수상과 외무상인 블래어와 스트로가 미중앙정보국의 해외비밀감옥운영자료를 자국의 대외정보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보고받았으며 때문에 모든 구체적인 내막을 다 알고있었다는것이다. 영국뿐이 아니다.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감옥존재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여오던 전 뿔스까대통령도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자기자신이 직접 비밀감옥운영을 허용하였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유럽나라들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너절하게 놀아댔다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영국을 비롯한 유럽동맹의 일부 나라들은 저들이 마치도 인권보장의 《본보기》나 되는것처럼 놀아댔는가 하면 다른 나라들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는듯이 묘사하면서 훈시질을 하여왔다. 국제무대에 나서기만 하면 《인권문제》론의에서의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운운하기도 하였다.

오늘에 와서 보면 그것이 다 자기의 깨끗치 못한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걸치레에 불과한것이였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찍어말하면 유럽동맹은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여왔다. 하기는 그러한 기미가 전혀 없은것은 아니다. 이전부터 유럽동맹은 인권문제취급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소리를 하고 편견적이며 선택적인 대미추종정책을 실시하여왔다. 그것은 유럽의 대조선정책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유럽동맹은 미국에 추종하여 처음부터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시야비야하였다. 터무니없는 강짜였지만 우리는 모든것을 참고 아량을 가지고 대하였다.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한 평등한 기초우에서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의사가 있다는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우리의 현실을 제눈으로 직접 보도록 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할데 대한 합리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그런데 그들은 애초부터 현실을 똑바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것을 한사코 거부하여나섰다. 그리고는 자기의 똑똑한 주견도 없이 미국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되받아외워대면서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돌격대로 나서서 청맹과니짓을 하였다.

문제는 다른 나라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취급에서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동맹의 일부 나라들이 세계도처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인권유린만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최근에는 미중앙정보국의 중세기적인 고문만행이 미국회에서 폭로되여 미국이 《고문선진국》으로 악명을 떨치며 전세계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못 본척 하며 아예 꿀먹은 벙어리처럼 놀아대고있다. 내외의 거세찬 비난과 압력이 가해지자 어쩔수 없이 하는 소리라는것을 들어보면 반성이라는것은 조금도 없고 오직 저들자신과 미국을 비호두둔하는것뿐이다. 유럽동맹의 행동을 보면 사람들을 아연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유치하고 비굴하다. 이것때문에 세상사람들의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바로 이런 유럽동맹이 아직까지도 유엔에서 미국의 뒤꽁무니를 따라다니며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려고 부산스레 놀아대고있다.

원래 우리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동맹이 삐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해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이 권리는 매개 나라들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보장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물론 로동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람차고 존엄있는 삶을 담보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제도라는것을 확신하고있으며 그것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다.

우리 인민이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인권제도에 대해 그 누구도 감히 이래라저래라하며 시비할 권리가 없다. 우리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곧 인권기준으로 된다.

국권이 없으면 인권이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 인권에 대해 론할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인권문제》를 걸고드는것을 나라의 자주권침해로 보고 그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것이다. 조금이라도 리성이 있다면 이런것쯤은 알고 행동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지금 유럽동맹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들고다닐 초보적인 자격마저 상실한 처지에 있다. 세계는 유럽을 지난 시기와는 다르게 보고있다.

유럽동맹으로 말하면 세계의 한 극을 형성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광고하며 등장한 거대한 존재이다. 한때는 세계에서 제노라 하며 미국을 상대로 하여 큰소리를 치기도 하였다. 국제무대에서 유럽동맹의 고위인물들은 늘 신사연한 태도를 취하여왔고 자존심에 대하여서도 곧잘 외워댔다. 이런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은 미국의 꼭두각시로서 인권유린만행의 공범자로 몰리우며 망신만 당하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미국으로부터 차례진것이란 꼬물만큼도 없다. 오히려 꾸바, 이란 등의 나라들과 금융거래를 한 처벌로 막중한 벌금세례를 받고있다. 미국은 지난해에만도 두번에 걸쳐 유럽은행을 상대로 하여 수십억US$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유럽동맹으로서는 그야말로 뭘 주고 뺨 맞는 꼴이 되였다. 유럽의 처지가 가긍하게는 되였다.

어떻게 되여 유럽동맹이 이렇게까지 되였는가. 그것은 유럽동맹이 미국의 강권에 눌리워 자기의 주견을 세우지 못하고 본래의 자세와 립장에서 벗어나 대미추종정책을 실시하였기때문이다. 이것을 놓고 분석가들은 유럽동맹의 본심은 미국의 환심을 사서 그들의 힘을 빌어 국제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것이라고 비평하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이전의 위세도 체면도 다 줴버렸다는것이 분석가들의 평이다. 이에 대해 유럽동맹은 할 말이 없게 되여있다. 실지행동이 그것을 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유럽동맹은 미국을 잘못 보았다. 미국은 결코 강한 존재도 아니며 이 세상은 미국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세계가 아니다. 미국은 자기 시대를 다 산 력사의 퇴물로서 이미 그 운명은 기울어져가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전문가들자체가 인정하고있다. 이러한 미국에 아부하며 하수인노릇을 하여왔고 지금도 맹종맹동하고있는 유럽동맹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결국 유럽동맹은 미국에 고분고분하며 뒤시중이나 들어주다가 수세에 몰리우고있다. 유럽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유럽동맹은 수치를 느껴야 한다.

유럽나라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미국에 아부하며 비렬하게 놀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공정한 립장에서 서서 처신을 바로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유럽의 위신을 회복할수 있는 길이다.

리 학 남

여러 나라 정당들과 정계인사들 성명, 담화 발표

파쑈적폭거와 정치테로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삐루정당들이 남조선당국의 파쑈적인 정치테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삐루사회혁명당은 지난해 12월 26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남조선의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와 자주, 통일을 강령으로 내세운 합법적이며 진보적인 정당이다.

민주와 자주, 통일을 바라지 않는 현 남조선당국은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을 문제시하며 탄압하던 끝에 《헌법재판소》를 동원하여 이 당을 강제해산시키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주권, 진보와 번영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 남조선당국의 행위를 파쑈적인 정치테로행위로 간주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같은 날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삐루민족독립운동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의 하수인이며 《유신》독재의 후예인 현 남조선파쑈당국은 《헌법재판소》를 내세워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정당을 강제해산시킨 폭거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감히 강행하기를 꺼리는 정치테로행위이다.

우리는 남조선괴뢰파쑈당국의 진보정당강제해산책동을 규탄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전체 조선민족의 념원에 역행하는 파쑈적폭거와 정치테로행위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방글라데슈공산당,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 방글라데슈인민련맹이 남조선당국의 파쑈적인 정치테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여 지난해 12월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의사에 의해 창설되여 합법적인 정당으로 활동해온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통합진보당으로 말하면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아온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이 내세운 강령은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방글라데슈진보정당들은 남조선당국이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것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한 극악무도한 정치테로행위로 락인하면서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한다.

* *

따쥐끼스딴, 남아프리카정계인사들이 남조선에서의 대정치테로사건을 규탄하여 지난해 12월 3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쉐. 샤브돌로브는 북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에까지 끌고가는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금 세계 진보적인류와 공정한 여론은 유엔무대에서 남조선당국의 인권범죄행위에 대해 문제시하고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북의 《인권》에 대해 떠들것이 아니라 마땅히 저들이 저지른 특대형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 국제사회앞에 사죄하고 해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다.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 비서인 남아프리카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 보나켈레 마주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진보적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고 이 당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하는 파쑈적전횡을 꺼리낌없이 감행한 소식에 접하여 경악을 금할수 없다.

통합진보당강제해산망동은 초보적인 법률적요구도 완전히 무시한 불법무법의 무지막지한 파쑈적폭거이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깡그리 유린하고 남조선을 정치적살인지옥으로 만든 극악무도한 중세기적횡포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정치탄압행위를 준렬히 규탄하면서 정의와 량심을 귀중히 여기고 리성적으로 행동할것을 촉구한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네트홈페지에 글 게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국가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규제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상리론적기치이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나라의 현실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국가기구체계에서 국방위원회의 권능을 비상히 높이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그 어떤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총대로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사회주의헌법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규제하고있다.

조선은 세금이 없는 나라이다.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완전히 청산되고 세금이 없어진 조선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다.

현실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을 지니고 그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조선인민은 국가로부터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이 누릴수 있는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다.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제 원칙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중요과업들을 규제한 정치헌장이다.

조선에서 사회주의헌법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인민자신의 법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단결된 힘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나가자

아프리카국가수반들 신년사에서 호소

아프리카나라 국가수반들이 새해 2015년을 맞으며 한 신년사에서 단결된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르완다대통령 뽈 까가메는 지난해 방위군과 안전군 장병들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활동으로 국가발전과 인민들의 희망의 근본초석인 나라의 평화와 안전이 수호되였으며 자력갱생의 구호밑에 경제건설과 국가관리 등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새해에도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돕고 이끌면서 힘을 합쳐 노력하여 국제무대에서 르완다의 국기를 더 높이 휘날릴것을 호소하였다.

우간다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는 새해에도 경찰을 비롯한 안전무력의 역할을 강화하여 테로와 범죄를 결정적으로 방지하며 농업부문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생산을 늘임으로써 인민들이 하루빨리 빈궁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가나대통령 죤 드라마니 마하마는 2015년은 가나인민에게 있어서 희망과 기대가 넘친 해라고 하면서 바라는 모든것이 현실로 되게 하려면 모두가 나라의 진보를 이룩하기 위해 집체적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케니아대통령 우후루 케니아타는 지난해 경제발전과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많은 목표들이 달성된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러한 성과의 주되는 요인은 바로 케니아인들의 불굴의 견인력과 결단성, 성실한 노력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금 케니아는 2030년 전망계획에 명시된 발전된 국가건설을 위한 로상에 있다고 하면서 그는 새해에 모든 주민들이 테로를 비롯한 온갖 도전과 난관을 물리치고 케니아를 단결되고 번영하는 나라로 일떠세우는 투쟁에서 단결력과 집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경제침체와 실업자증대, 범죄성행

-일본내각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10월에 전국적으로 주요기계제품주문량이 그 전달에 비해 6.4% 감소되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미국에서는 공장들의 제품주문량이 0.7% 떨어져 련속 3개월째의 감소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지난해 11월에 실업자수가 3 488 000여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5.8%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한편 미국에서 실업문제가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지난해 12월 24일 미로동성은 20일까지의 1주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280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영국 잉글랜드의 데본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1일 정체불명의 범죄자들이 칼과 도끼를 마구 휘둘러 사망자가 발생하고 여러명이 부상당하였다.

같은 날 잉글랜드의 워릭셔주에 있는 한 유흥장에서도 3명의 범죄자들이 칼부림을 하여 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카나다 앨버타주의 에드몬톤시에서 2건의 살인행위가 발생하여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루이지아나주의 뉴 올리언즈시에서도 지난해 12월 24일 총기류범죄사건이 일어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시의 한 상점앞에서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쏜 총에 맞아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미국인들 인종차별행위에 우려

미국인들속에서 사회적으로 만연하는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최근 AP통신이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많은 응답자들이 지난해에 일어난 주요사변들중에서 퍼구슨시와 뉴욕시에서 감행된 백인경찰들에 의한 흑인살인만행을 첫번째로 꼽았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에볼라비루스감염증에 의한 인명피해 확대

세계적으로 에볼라비루스감염증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 12월 31일현재 에볼라비루스감염자수는 20 206명으로 늘어났으며 사망자수는 7 905명에 달하였다.

리베리아, 시에라레온, 기네가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고있다고 한다. 병의 전파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 12월 22일현재 시에라레온에서는 사망자와 감염자수가 각각 2 556명, 8 939명으로 증대되였으며 기네에서도 사망자와 감염자수가 1 586명, 2 571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만도 리베리아와 기네, 시에라레온에서 175명의 사망자가 등록되였다 한다.

또한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에볼라비루스감염증환자가 발생하였다.

지난해 12월 28일 이 나라 보건당국은 시에라레온에서 돌아온 보건부문의 한 녀성로동자가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해군무력강화노력

로씨야가 해군무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이 나라 국방성은 지난해에 6척의 전투함선과 단정, 1척의 잠수함, 10대의 해상항공대 비행기, 21척의 함선과 보급선, 22대의 전파탐지기가 해군에 납입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의 전투준비계획에 따라 전략핵잠수함들인 《유리 돌고루끼》호와 《알렉싼드르 넵스끼》호에서 《불라바》대륙간탄도미싸일의 발사가 진행되였다 한다.

전술미싸일 발사

이란이 지난해 12월 28일 개량된 《매버리크》공중대지상전술미싸일들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미싸일들은 나라의 남부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군사연습과정에 이란공군전투기들에 의해 발사되였다.

공중지원용으로 설계된 이 미싸일들은 장갑무기와 반항공시설, 함선, 지상운수수단, 연료저장고 등 전술목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다고 한다.

경제 장성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4.4분기에 경제가 그 전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 1.5% 증대되였다.

2일 이 나라 무역 및 공업성이 밝혔다.

경제성과

케니아에서 지난해 3.4분기에 경제가 5.5% 증대되였다.

최근 이 나라 통계국이 밝혔다.

마약반대투쟁성과

만마에서 지난해 마약반대투쟁을 강화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이 나라 반마약당국은 아편재배지들에 대한 파괴작전을 벌린 결과 아편재배면적이 200ha 줄어들었으며 그 생산량도 25% 감소되였다.

또한 마약제조와 밀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많은 량의 마약과 무기들을 압수하고 범죄자들을 체포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밑에 반마약투쟁을 계속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예산 채택

알제리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2015년도 국가예산을 채택하였다.

이 나라 대통령이 국가예산을 비준하였다.

예산은 2015년에 나라의 경제를 3.42% 장성시킬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인도네시아에서 차나무비배관리

미국의 부당한 제재책동 규탄

베네수엘라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제재책동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그는 한 나라의 국회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자주적인 나라와 인민을 제재와 위협으로 굴복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너무나 오만무례하고 어리석은짓이라고 말하였다.

평화적핵개발 지지

벨라루씨외무상 울라지미르 마께이가 지난해 12월 27일 이란외무상과의 회담석상에서 이란의 평화적핵개발을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밝혔다.

벨라루씨는 이란의 평화적핵기술개발권리를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는 이란이 앞으로 렬강들과의 핵관련회담에서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단평 죄많은자의 피해망상증

얼마전 미국정부가 자국민들에게 해외려행시 각별한 주의를 돌릴것을 권고하는 려행경보령이라는것을 내렸다.

그 리유는 세계도처에서 미국인을 겨냥한 각종 위협이 있을수 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죄많은자의 피해망상증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도적이 제발 저려하고 죄지은 놈은 겁부터 먹는다고 세상 못된짓이란 못된짓은 도맡아하고있는 미국이고보면 그런 정신착란증에 걸릴만도 하다.

부당한 대외정책, 전쟁정책실현을 위해 세상을 벌둥지 쑤셔놓은것처럼 소란스럽게 만들어놓은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미국의 마수가 뻗치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 사회적혼란과 무질서가 횡행하고있다.

미국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가 비발치듯 하고 미국은 도처에서 얻어맞는 동네북신세가 되고있다.

안에서는 온갖 범죄와 사회악으로 하여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를 불안에 떨어야 하고 또 밖에서는 마음대로 나다닐수도 없게 된 미국민들을 가련타 하지 않을수 없다.

박 송 영

제12차 아시아체조련맹총회 진행

제12차 아시아체조련맹총회가 최근 까타르의 도하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련맹성원국협회들에 지원을 주기 위한 아시아체조련맹기금을 설립하며 아프리카체조련맹과 협력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총회에서 까타르의 아브둘라 호만 알 샤트리가 위원장으로 재선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누구도 례외로 될수 없는 환경보호문제

-지난 20년동안 전세계적으로 150 000회의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하여 530 000명이 사망하고 수조US$의 손실을 초래!

이것은 지난해 12월 빼루의 수도 리마에서 진행된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된 온난화로 인한 피해상황자료이다.

무심히 들을 소리가 아니다.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있다.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첨예한 문제의 하나이다.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는 201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번 세기말까지 전세계의 평균기온이 현재보다 최고 4.8℃ 더 오를것으로 예측하였다.

그 후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온난화로 인한 바다물면상승으로 륙지전체가 바다에 잠길 위험성을 안고있는 나라도 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수상은 이번 회의에서 《투발루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바다에 잠겨 사라지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하면서 국제적인 긴급대책을 호소하였다.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가물과 큰물, 태풍, 열파, 폭설 등에 의한 피해는 더 말할 여지조차 없다. 그 어느 나라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지 않은 나라가 없다.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이상기후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들의 순위에서 앞자리를 차지한것은 대부분 발전도상나라들이다. 일명 태풍의 나라로 불리우는 필리핀은 2013년 한해동안에만도 대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사망자는 무려 6 000명에 달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전쟁피해를 릉가할것이라는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환경문제를 강건너 불보듯 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온난화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발벗고나서야 할 초미의 문제, 첨예한 정치문제이다.

국제적으로 온난화를 막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고있다.

당면하여 올해 12월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될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2012년에 만료된 교또의정서를 대신하는 새로운 기후협정을 체결하는것이 급선무이다.

올해에 나오게 될 협정은 1997년에 채택된 교또의정서와는 달리 발전도상나라들도 온실가스방출량삭감에 참가하는것이 특징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진행된 리마회의는 올해에 채택되게 될 협정의 초안을 작성하는 준비회의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회의는 순탄치 않았다.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온실가스방출량삭감을 둘러싸고 발전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계속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서방나라들이 아직까지 눈앞의 리익만을 앞세우면서 무책임하게 놀아대고있다. 결국 협상끝에 이미 전에 계획했던것보다 낮은 합의점에 겨우 도달하고 회의를 끝마치게 되였다.

합의된 문건에 의하면 회의참가국들은 올해 3월 31일전으로 자기 나라의 온실가스방출량삭감계획들을 제출해야 한다. 그 계획들이 문건에 포함되여 최종적으로 작성비준된다고 한다.

기후변화의 파국적인 영향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보다 좋은 생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은 계속되고있다.

문제는 합의된 내용들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말하자면 합의는 합의대로 남아있고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것이다.

단적실례로 미국을 들수 있다. 원래 교또의정서에 의하면 미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방출량을 1990년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7% 낮추게 되여있었다.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장본인인 미국에 대한 응당한 요구였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미국은 교또의정서리행은 고사하고 온실가스방출량을 더욱 늘이는것으로 도전해나섰다. 지어 저들의 삭감몫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다른 나라들을 걸고늘어지면서 교또의정서를 완전히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번 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미국이 가스방출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휜소리를 쳤지만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지 않은것은 그때문이다.

인류가 겪는 재앙은 안중에 없이 오직 저들의 경제적리속만을 채우려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있어 지구온난화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사업은 결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다.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본사기자 전 영 희

ㄱ-51003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